

보성 틀게이트 수납원 “도공이 직접 고용해야”

자회사 소속 강요 기간제 근로자 대체 규탄 도로공사 “대법원 최종판결 따라 이행할 것”

한국도로공사 용역업체 보성틀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도공의 자회사 전환 반대를 주장하며 직접 고용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도로공사 보성지사 요금수납원들은 ‘한

국도로공사는 법원의 판결도, 정부의 가이드라인도 무시하고 노동자들을 집단해고하고 있다’며 규탄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부터 보성지사 앞에서 천막 집회와 함께 지난 12일 청와대 앞

결의대회에 참석,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방침에 따라 정규직 전환과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틀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2013년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청구해 1, 2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마지막 대법원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가 전환되는 자회사 소속을 강요하고, 신분을 보장 받을 수 없는 기간제 근로자로 대체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수납원의 손을 들어 줄 경우, 도로공사는 직접 고용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7월 1일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출범을 앞두고 있다. 특히 보성지사에는 14명의 수납원 중 5명의 수납원들이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을 했지만, 소속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9명의 수납원들은 계약이 종료돼 사실상 해고된

상태. 보성지사 요금수납원 A씨는 “노사합의 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며 말이 자회사 지 사실상 자회사는 큰 용역사나 다름없어 고용이 된다 해도 불안정한 건 사실”이라며 “자회사 전환 동의 사인을 하지 않으면 기간제 노동자로 고용을 한다는데 이게 정부 지침이냐”며 강력 반발했다. 그는 이어 “승진도 많은 월급도 바라지

않는다”며 “안정된 무기계약직이 되길 바랄 뿐”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 보성지사 관계자는 “지난해 9월 5일 이뤄진 노·사 합의에 따라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고용안정화를 위해 자회사 전환에 반대하는 요금수납원은 한시적 고용 증축을 위해 기간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법원의 최종판결 결정에 따라서 직접 고용이나 정부 지침에 맞게 자회사의 추가채용을 생각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를 박탈시키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이 가장 최선이라 생각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이주연 기자

고흥 치매안심센터 정식 개소 맞춤 통합관리서비스 등 운영

고흥군이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치매환자·가족을 위한 체계적인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근 고흥군 치매안심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열린 개소식은 송귀근 고흥군수, 도·군의원, 유관기관 관계자,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행사로 515개소 고흥군 전 마을에 보급하고 있는 치매예방 체조 시연과 함께, 경과보고, 기념사, 테이프 커팅 순으로 진행됐다.

송귀근 군수는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초기 상담과 예방 및 조기검진 등 치매 통합관리서비스를 잘 실천해 치매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고흥을 만들어 가는데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치매안심센터는 연면적 462.40㎡, 지상 2층 규모로 치매검진실, 상담실, 치매환자 청춘센터, 가족카페, 프로그램실, 사무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 11명의 전문 인력이 맞춤형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고흥군이 최근 치매안심센터 개소식을 갖고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

주요 사업으로는 치매조기검진, 치료·관리비 및 조호물품 지원, 치매환자 단기 입원 운영, 치매가족 1대1 상담과 자조모임을 통한 치매가족 지원, 지역주민 대상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치매관련 서적

을 통한 정보 제공 등 지역 통합적 치매관리 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고흥군 관계자는 “치매안심 센터는 어르신들이 언제든 찾아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되고 치매가족들

의 부담 완화 및 치매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어르신들의 치매예방을 위한 사업 확대에 치매 걱정 없는 고흥 만들기에 큰 기여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진중언 기자

여수해경 예인선·유조부선 대상 점검

7월 19일까지 유관기관 합동

여수해경이 해양오염 사고 때 피해가 큰 중질유 오염사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예인선과 노후유조부선을 대상으로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대대적 점검에 나선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1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6주 동안 관내 해상풍력단지, 연륙교 건설 등 해상 공사에 동원된 예인선 및 유조부선 총 92척을 대상으로 해양수산청, 한국선급,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테마형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예인선과 유조부선 대부분은 선체가 낡고 선원들의 고령화에 따라 부주의에 의한 해양오염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다른 선박에 비해 예인선의 경우 중질유 연료를 사용하고 있고 사고 발생 때 해양오염 피해정도와 규모가 크고 복구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점검 점검내용으로는 ▲예인선 연료탱크 납집관 등 경보장치·잠수펌프 설치 여부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미교부 및 미검사 운항선박 ▲유조부선 안전관리 상태 및 오염물질 처리실태 점검 ▲기립작업 안전수칙·오염손해보상계약 여부 등이 다. /동부취재본부=우성진 기자



여수해경이 예인선을 점검하고 있다. /여수해경 제공

고흥군정 여론조사 ‘잘한다’ 82.2%

‘군민 복지서비스 강화’ 만족도 가장 높아

고흥군이 민선 7기 1년을 맞아 최근 군민을 대상으로 고흥군정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송귀근 군수의 군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군민들의 긍정평가가 82.2%로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잘못한다’는 부정평가는 13.5%에 그쳤다.

이는 송귀근 군수가 취임 이후 워킹, 균형, 투명이라는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주민위주 행정을 펼친 점이 군민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년간 가장 잘한 일로는 ‘군민 복지서비스 강화’가 24.9%로 가장 높았으며, 복지서비스 강화가 가장 잘한 일로 조사된 이유로는 어르신·장애인·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정책들이 군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 등 국비확보’ (19.6%), ‘군민 하나되기 운동 등 군민통합’ (17.9%)순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고흥군 행정에서 미흡한 분야로는 ‘농업 생산시설 개선과 사업비 지원 등 농수축산 분야’ (23.9%)와 ‘주차장과 문화공간 부족 등 주거환경 분야’ (23.1%)가 높게 나타났다.

고흥군민들은 민선 7기에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분야로는 ‘인구감소 중단을 위한 인구유치’ (29.2%)와 ‘군민소

통한 정보 제공 등 지역 통합적 치매관리 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고흥군 관계자는 “치매안심 센터는 어르신들이 언제든 찾아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되고 치매가족들

의 부담 완화 및 치매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어르신들의 치매예방을 위한 사업 확대에 치매 걱정 없는 고흥 만들기에 큰 기여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오피니언라이브가 지난 6월 9일, 고흥군 19세 이상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동부취재본부=진중언 기자

곡성멜론 내달 14일까지 판촉 농협 하나로클럽 양재점 진행

곡성군이 대표 소득 작목인 곡성멜론 판촉행사를 지난 14일부터 농협 하나로클럽 양재점에서 진행하고 있다.

농협하나로클럽 양재점은 수도권 하나로클럽 중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곡성군은 7월 14일까지 약 1개월 간 진행되는 판촉활동을 통해 곡성멜론의 브랜드 인지도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 곡성군은 최첨단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서 비파괴 당도측정기를 사용해 선별한 최고 품질의 곡성멜론을 선보인다.

곡성농협의 관리하에 계약재배로 생산된 제품들이기 때문에 안전성과 품질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상품들이다.

/동부취재본부=한정길 기자

클릭! 고흥 소식



곡성 지역 농정발전 협의회 현안 토론

곡성군은 최근 군청 소동마루에서 농정 현안에 대한 토론을 위해 곡성군 지역농정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유근기 군수, 농협중앙회곡성군지부장, 관내 농협협장 등 25명

이 참석해 곡성군 대표 브랜드육 육성 방안 등 16개 사항에 대해 논의를 펼쳤다. 특히 로컬푸드 육성, 멜론과 토란의 포진 매매 근절 대책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동부취재본부=한정길 기자



순천대-삼산동·매곡동 상호협력 협약

순천대학교는 최근 삼산동행정복지센터에서 순천시 삼산동·매곡동과 지역발전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양 기관은 국가정원 조성과 도시 인프라 구축 등 순천시가 살기 좋은 전남도

제의 도시임을 알리고, 주민등록 질서 확립을 통해 인구 늘리기 정책에 많은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기로 약속했다. /동부취재본부=이주연 기자



고흥 다문화 가족 어울림 한마당 성료

고흥군가족센터와 고흥교육지원청은 최근 팔영체육관에서 ‘제4회 다문화 가족 어울림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다문화 가족과 지역민이 함

께하는 축제로 결혼이민 여성들로 구성된 모듬북 공연, 국적별 가정무도회, 구인·구직 취업 및 상담, 녹색 생활실천 환경세계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호응을 얻었다. /동부취재본부=진중언 기자